전남, 우승 향해 돌격 앞으로

K-리그챔피언십, 내일 성남과 준PO 격돌

곽태휘·염동균 등 컨디션 최상 '돌풍 예고'

박항서 감독의 반전극이 시작된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전남 드래곤즈가 25일 오후 7시 성남 종합운동장에서 성남 일화와 K-리그 쏘나타 챔피언십 2009 준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른다.

전남은 앞선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FC 서울과의 6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끝에 골키퍼 염동균의 선방으로 3-2로 승리하며 플레이오프티켓을 거머쥐었다.

우승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박 감독에게 주어진 플레이오프티켓은 특별하다.

지난해부터 전남을 진두지휘한 박 감독은 부임 첫해 삼성하우젠컵 준우승을 차지하며 2009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박 감독은 수비의 핵 곽태휘과 오른 무릎 십자인대 수술 후 재활을 하느라 자리를 비우자 김영철, 이정열, 안효연, 정윤성, 김승현 그리고 이천수 등을 영입하며 판을 새로 짰다.

하지만 2009시즌은 시작부터 시련이었다.

3월7일 홈에서 열린 서울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1-6의 대패를 당했다. 설상가상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품에 안았던 '풍운아' 이천수가 개막전에서 오프사이드에 항의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해 6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600만원(경기당 1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첫 경기부터 삐걱거렸던 전남은 개막 후 5경기에서 4무1패를 기록하며 최하위로 추락했다. 이후 이천수가 복귀하면서 팀의 공격의 물꼬를 트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이천수 이적파동'이 발생했다. 이적파동과 함께 팀이 침체일로를 걸으면서 박 감독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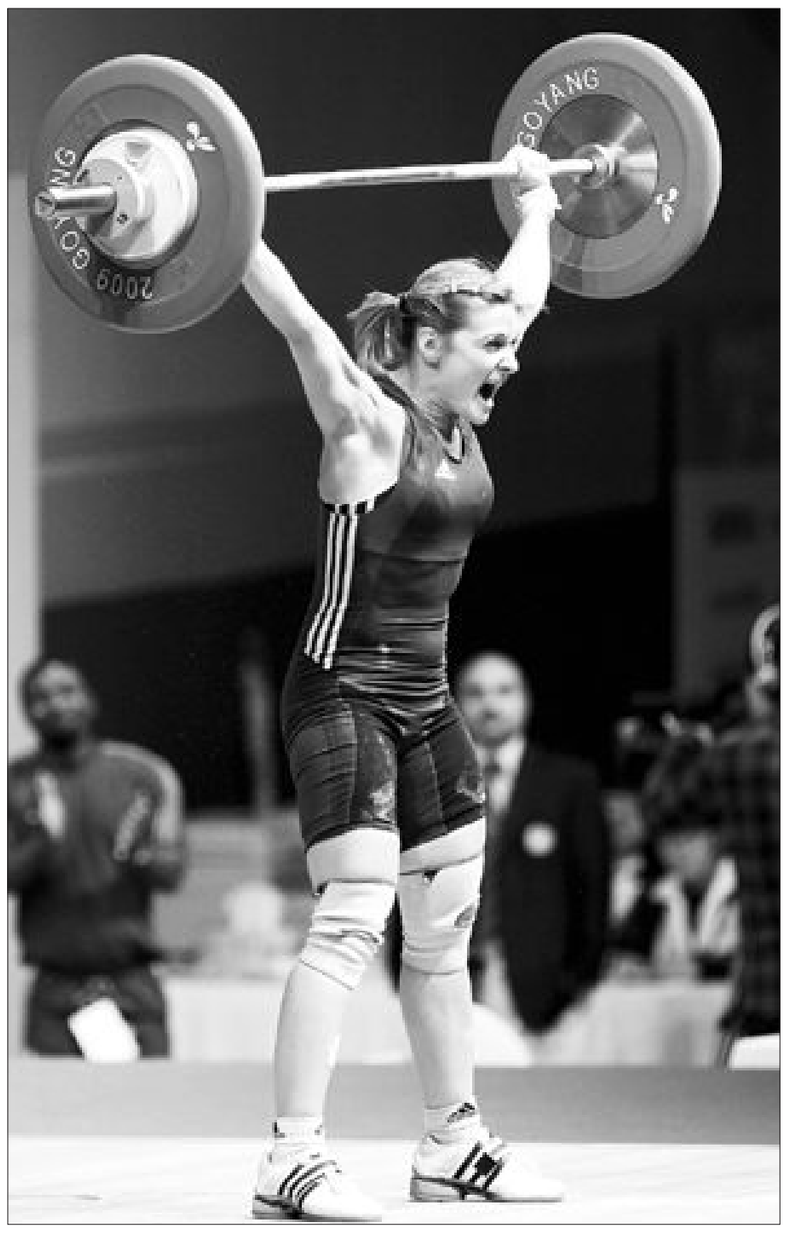
힘겨운 전반기를 보낸 전남의 저력은 뒤늦게 발휘됐다. 후반기 들어 차근차근 승을 쌓으며 멀게만 보이던 6강 고지에 근접한 전남은 곽태휘의 복귀로 힘을 얻었다. 그리고 지난 1일 서울과의 리그 최종전에서 1-1로 비기며 극적으로 6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냈다.

개막전 대패의 불명예를 안겼던 서울을 상대로 6강행을 확정지은 전남은 준플레이오프에서도 천금같은 승리를 거두며 다시 한 번 설욕전을 펼쳤다.

전남에 뜨거운 가을을 선물한 박 감독은 구단으로부터 재계약 약속을 받았다. 올 시즌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을 6강으로 이끈 공로와 전남의 유소년클럽 시스템을 통해 성장한 젊은 선수들을 과감히 기용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구단을 위해 앞장 서는 등 전남의 감독으로 인정 받은 것이다.

난적 서울을 꺾으며 첫 관문을 넘은 박 감독은 그 상승세를 이어 25일 성남을 상대로 다시 한 번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쯤이야!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2009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여자 58kg급에서 프랑스 시케 아그네스가 83kg 바벨을 함성과 함께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안서 전국 섬 등반대회

28일 도초면…시금치축제도

신안군은 오는 28일 도초면 큰 산(해발 250m)에서 '전국 등반대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섬 등산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등반대회는 '은빛 나는 해수욕장과 그리고 산과 섬'을 주제로 열린다.

등산 코스는 파크 골프장에서 출발, 큰 산 입구→큰 산 정상→임도→목교→시목해수욕장 숲길 산책로→ 행사장까지 5.2㎞로 2시간 30여분이 걸린다.

부대행사로는 막걸리 시음회와 함께 시금치 무침, 간재미회 등을 맛볼 수 있는 '제2회 신안 시금치 축제'도 열린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kwangju.co.kr

석지현 2관왕 명중

亞양궁선수권 컴파운드

여자 컴파운드(양 끝에 도르래가 달린 활) 대표팀의 석지현(한국체대)이 아시아양궁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23일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석지현은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막을 내린 제16회 아시아양궁선수권 대회 컴파운드 개인전 결승에서 태국의 틴부아 나리사라를 111-109로 물리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석지현은 컴파운드 단체전에서도 인도를 225-215로 제압하면서 금메달 두 개를 목에 걸었다.

지난 9월 울산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리커브 개인전 우승자인 주현정(현대모비스)은 결승에서 중국의 장윤루를 116-105, 11점 차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거머쥐어 최강임을 입증했다. 김유미(한국토지공사)는 동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여자 양궁은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에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또 울산 세계선수권 남자 리커브 우승자였던 이창환(두산중공업)은 메달권에도 들지 못했다. 남자 리커브 개인전 최고 성적은 김성훈(한국체대)의 8강 진출이었다.

다만 남자 대표팀은 리커브 단체전에서 인도를 222-218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해 체면치레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본선 실패' 히딩크

아르헨·나이지리아서 러브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유럽예선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러시아 사령탑 거스 히딩크(63·네덜란드) 감독이 나이지리아 또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이끌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내년 7월 러시아와 계약이 끝나는 히딩크 감독은 지난 19일(이하 한국시간) 슬로베니아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0-1로 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 계약이 조기에 종료될 상황에 놓였다.

러시아 관영 이타르타스통신은 23일 나이지리아 지역지 '넥스트'를 인용해 히딩크 감독이 샤이부 아모두 감독이 떠난 나이지리아 사령탑을 맡을 후보 가운데 유력한 한 명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인터넷판을 통해 히딩크 감독이 디에고 마라도나(49) 감독과 함께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공동 감독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외국인 노동자 생활체육캠프 성료 2009 외국인노동자생활체육캠프가 지난 22일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노동자들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 주최로 열린 이번 캠프는 광주시청 견학·무등산 등반에 이어 축구와 배구 등 스포츠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간의 친목을 다졌다.

워드, 128야드 전진…시즌 5번째 터치다운

미국프로풋볼(NFL)에서 뛰는 한국계 선수인 하인스 워드(33·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시즌 5번째 터치다운을 찍었다.

와이드 리시버 워드는 23일(한국시간) 캔자스시티 애로우헤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11주차 경기에서 양팀을 통틀어 가장 긴 128야드를 전진하며 터치다운을 올렸다.

2경기 만에 터진 올 시즌 5번째 터치다운이다.

워드는 3-7로 뒤진 2쿼터에 쿼터백 벤 로슬리버거의 8야드 패스를 받아 터치다운에 성공했다. 하지만 피츠버그는 24-27로 졌다.

피츠버그는 6승4패로 아메리칸콘퍼런스(AFC) 북부지구 2위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화순 코리아챌린지' 배드민턴 대회 개막

29일까지 6일간 하니움체육관

日·濠·러시아 등 14개국 참가

화순코리아챌린지 국제배드민턴 대회가 화순군에서 열린다.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엔 뉴질랜드·호주·필리핀·네덜란드·이집트·몽고·우크라이나·태국·대만·러시아·일본·캐나다·말레이시아·한국 등 14개국 217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13개국 외국선수단은 20일부터 23일까지 입국하였으며 금호화순리조트에 여장을 풀었다.

국내 선수단은 화순읍내에 숙소를 정하고 마지막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28일엔 오후 1시부터 종목별 준결승이 벌어지고, 29일엔 대망의 결승전이 열린다.

이번 대회 준결승과 결승전은 SBS-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된다.

2008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 이용대-이효정 선수는 오는 28일 낮 12시에 하니움에서 팬사인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이번 국제대회를 계기로 화순이 세계적인 배드민턴의 메카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장 시설과 운영은 물론 화순의 넉넉한 인심을 세계인의 가슴속에 심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정운수기자 unsu@

스포츠중계

24일(화)

▲프로농구 〈KT : LG〉(18 : 50·SBS스포츠), 〈KT&G : 삼성〉(20 : 00·MBCESPN)

▲V리그 〈현대캐피탈 : LIG손보〉(18 : 40·KBSN SPORTS)

▲고양 세계역도선수권대회 (19 : 00·MBCESPN·MBC)